



“우리는 대장경을 통해 마술 같은 논리의 붓다를 만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

소흥렬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한국 철학계의 태두로 불리는 인물이다. 1936년생으로 원래 개신교 신자였던 그는 불교에 귀의한 지성인이다. 만년에 이르러서야 불교를 만났던 소 교수는 자신의 구도 역정을 담은 <불심초>를 펴내기도 했다. 6월 27일,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식에서 소흥렬 명예교수는 ‘대장경에서 만나는 붓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소 명예교수는 “대장경은 붓다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체”라고 말했다. 소흥렬 명예교수는 우리가 대장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붓다를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 >마술 같은 논리의 붓다로 설명했다. 다음은 소흥렬 교수의 기조연설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소흥렬 포항공대 명예교수, 2011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학술대회서 기조연설

인류역사가 남긴 소중한 보물 하나가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의 가치를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 중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장경이 붓다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장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붓다와 만나게 되느냐고 하면, 무제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경에서 만나는 붓다를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와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 그리고 ‘마술 같은 논리의 붓다’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종교적 믿음에는 기적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체험을 수반하는 것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종교적 믿음으로서의 공통점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적의 체험은 또한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

종교적 믿음은 관념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믿음은 체험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실천이 종교적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붓다가 자비심의 실천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극한 자비심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심의 실천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을 만드는 불사로서 재난과 국난을 피하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도 그런 기적의 힘을 믿었습니다.

붓다가 보여준 자비심이 특별했던 것은 자비심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 또는 자비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하고 충분하게, 폭넓고 깊게 있게 관련된 모든 상황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붓다의 능력이 그의 자비심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붓다의 혜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문제상황에 대해 대충 이해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은 자비의 실천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적인 자비의 실천이 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붓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비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입니다.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의식에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기만당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차별과 대립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심한 좌절감과 벼랑 끝에 절망하는 사람들, 환각에 사달리고 망각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소외감과 허방함으로 인생무상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붓다의 자비심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현실 세계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에는 여전히 자비의 실천을 요하는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종말의 위기에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모순과 고독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대장경을 통해 붓다를 만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런 붓다의 대자대비하심, 붓다의 자비로운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결코 자만할 수도, 오만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종교적 편견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만들게 하는 붓다의 자비심이고,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하는 붓다의 자비심이지만, 그 자비심을 우리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적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붓다의 자비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의 또한 가지는 영혼 불멸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줍니다.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되면, 나중에 그곳에서 영혼으로 다시 만나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의 생애에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는 것을 받아

우리의 영혼과 교감하게 하면서, 붓다의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붓다는 어떻게 말했을까. 붓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나는 붓다입니다. 대자대비하심 붓다의 마음이 수반하는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입니다. 자비심의 실천으로 보답하게 하는 붓다의 영향력 못지않게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과 만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예술적 감동으로 느끼게 합니다.

붓다의 아름다운 영혼은 끊임없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돼왔습니다.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미술 등 조형예술 또는 공간예술의 영감이 되어 왔다는 것은 특이합니다. 붓다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재현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예술작품은 작품의 예술성, 즉 작품의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면서 또한 예술작가의 영혼과도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체가 됩니다. 끊임없는 불교 예술에 영감을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대장경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을 조형예술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불심의 힘입니다.

우리가 유형화하지 못한 종류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붓다의 논리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비언어 논리를 유묘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논리와 비언어 논리는 모두 합리성의 논리입니다. 합리적 사유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합리적 사유와는 다른 정서적 사유가 있습니다. 합리적 사유가 아닌 정서적 사유가 있습니다. 합리적 설득만이 아니라, 정서적 설득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사유나 정서적 설득에 논리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정서의 논리가 됩니다. 붓다의 논리에는 이런 정서의 논리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붓다는 그야말로 공간 논리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분위기와 공간의 정서에 맞는 논리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분위기는 붓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붓다는 그런 공간 분위기, 공간 정서마다 그것에 맞는 공간 논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붓다와의 대화를 기록하고자 한 경전이 방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설득의 논리로 안내해준 붓다의 지혜는 철학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 설득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넘어서면, 붓다의 지혜는 철학적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논리가 붓다의 논리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철학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종교적 신비의 세계에까지 설득의 논리로 접근하게 합니다. 논리적 이해와 설명의 가능성과,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한계성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실천으로 그러한 세계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마술 같은 붓다의 논리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붓다의 자비로움에 다시한번 감동하게 되는 우리는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붓다의 영혼과 만날 수 있는 조형예술의 공간을 찾게 됩니다.

붓다의 논리는 그가 존재하게 된 공간의 분위기와 정서에 맞게 그가 선택하는 공간 논리입니다. 그것은 조형예술의 논리이면서, 대화예술의 논리입니다.

대장경에서, 대장경을 통하여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를 만나서 종교적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를 만나서 마르지 않는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됩니다.



## 불사로 국난 극복하고자 했던 힘, 대장경에 담겨 붓다는 자비롭고 영혼이 아름다운 논리의 마술사

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생명을 다하면, 두뇌 기능이 멈추고, 마음의 기능도 끝내버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감을 받는 체험, 영혼으로 감동하는 체험, 영력을 느끼게 하는 체험,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체험은 특이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감하는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소망 때문에 종교에는 영혼불멸을 약속하는 세세의 신앙이 있습니다. 영혼불멸의 천국을 말하면서, 영혼불멸의 지옥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한편의 작품이 되게 하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한 수도자들이 있고,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실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혼의 힘이라고 할 어떤 힘에 끌려서 현신적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영력으로 실천하며 살아간 생애가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붓다는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입니다. 대장경은 한편의 작품이 된 그의 생애를 그려주면서,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과 만나게 하는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붓다의 영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장경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붓다는

# 마술같은 논리의 붓다

종교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혜의 보고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 경전은 그러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보고는 지식의 보고가 아닙니다. 축적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으며, 인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진리라면, 지혜의 진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데는 그 지혜에 이르게 하는 사유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안내하는 대화에서는 논리적 설득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종교에서 지혜를 전하는 방법에는 그런 논리적 설득과 이해보다는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경에서 만나는 붓다는 그런 점에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붓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술 같은 논리로 설득하는 힘입니다.

붓다는 인류 역사상 10명의 수학 천재 중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수학의 논리 또는 언어 논리에서의 그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의 논리는 언어 논리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비언어 논리의 적용이 그의 설득력을 풍부하게 하고 강하게 해줍니다. 비언어 논리에는 아직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편 두한족열의 원리로 목속 노폐물이 빠지고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목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도도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제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당중 원기 식욕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검색특 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대

###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꽃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채이 땅의 오로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외를 만들었습니다.

▶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고소울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